

“‘평생 살고 싶은 도시’ 목표…따뜻한 시정 펼칠 것”

병오년 새해설계



정인화 광양시장

“비상지지(飛上之志)의 각으로 광양의 새로운 10년을 향한 도약을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5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

미래 신산업 육성·주력산업 혁신

‘이차전지 소재산업 수도’로 도약

백운산·섬진강권 관광 기반 완성

는 ‘평생 살고 싶은 도시’를 목표로 시민이 체감하는 따뜻한 시정을 펼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 시장은 올해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미래 신산업 육성과 주력산업 혁신을 통한 경제 도약을 꿈았다. AI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주력산업인 철강·이차전지·수소산업에 AI를 접목하고, 철강산업 AX 예산을 투입해 체질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발판 삼아 ‘국가첨

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이끌어내 이차전지 소재산업의 수도로서 입지를 굳힌다는 구상이다.

또한 수소체험커뮤니티센터 구축과 수소특화단지 지정을 추진해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고, 광양항을 북극항으로 시대의 동북아 중심항만으로 키우기 위한 ‘북극항로 개척 TF’도 활성화한다.

관광 분야에서는 대규모 인프라 완공을 통해 ‘체류형 관광문화도시’의 기반을 완성한다. 백운산권에는 산림복지단지와 도선 천년동백정원을, 구봉산권에는 체험형 조형물과 상상놀이터를 조성한다.

집합 관광지인 구봉산권의 체험형 조형물 공사는 6월 준공을 시작으로 상상놀이터, 소재전문과학관, 통합주차장 등을 2027년까지 완공한

다. 섬진강권은 배일도 캠퍼스와 아트케이션 등을 통해 감성 인문 공간으로 거듭난다.

농촌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젊은 농촌 만들기’ 프로젝트를 가동해 광양형 스마트팜을 조성, 매년 청년농업인의 정착을 돋고, 고부가가치 농식품 가공산업을 육성해 농가 소득을 높인다.

청년이 꿈을 펼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지원 강화를 통해 맞춤형 청년 임대주택 확충과 공유 오피스텔 도입을 검토하고, 스마트 구인구직 플랫폼 ‘굿잡광양’ 활성화와 청년 창업 공간 확대로 일자리와 주거 걱정을 덜어줄 계획이다.

복지 분야에서는 광양만의 ‘생애복지플랫폼 2.0’을 완성한다. 태아부터 노년까지 전 생애를 아우르는 맞춤형 정책으로, ▲공공산후조리원 개원 ▲24시간 돌봄어린이집 운영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 지원 등을 통해 육아와 교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인다.

아울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도심 숲 등 탄소흡수원을 확충하고, 옥곡천 생태하천 조성 등으로 도시의 생태 회복력을 강화한다. 시민 안전을 위한 ‘지능형 관제 시스템 구축’과 ‘재해위험지역 정비’에도 만전을 기한다.

이밖에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해 공영주차장 300면 추가 조성, 주요 도로 확·포장 공사를 통한 교통 불편 해소, 경전선 KTX-이음 정차와 광양 세무서 유치 등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에도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시민의 목소리는 곧 시정의 방향”이라며 “언제나 시민곁에서 기쁨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모든 세대가 함께 웃을 수 있는 따뜻하고 품격 있는 광양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광양=양홍렬기자

장흥군, 수의계약 낙찰률 ‘현실화’…건설업계 숨통

1천만원 이하 95%→100% 상향

부실시공 예방·경제 활성 등 기대

장흥군이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계를 위해 낙찰하한율을 대폭 상향 조정해 적용한다.

5일 장흥군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인 수의 계약 낙찰하한율을 구간별로 대폭 상향 조정해 적용한다. 낙찰하한율은 공기관 별주 계약에서 무리한 저가수주경쟁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이번 조치는 최근 건설 경기 불황 속에 인건비와 자재비는 급등한 반면, 낮게 유지돼 온 낙찰률 텃에 지역 업체들이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해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결과다.

변경된 기준에 따라 ‘1천만원 이하 공사·용역·물품 계약’은 기존 95%에서 100%로 낙찰률이 상향돼 사실상 설계가 전액을 보장받게 됐다.

또한 ‘1천만원 초과-1천500만원 이하’는 기존 98%에서 98%로 ‘1천500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는 90%에서 90%로 ‘2천만원 초과 시’에는 기존 88%에서 90%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군은 이번 조치로 업체들이 적정 마진을 확보하게 되면, 경영 부담 완화는 물론 무리한 원가 절감에 따른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공사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는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오랫동안 고정됐던 낙찰하한율을 현실에 맞게 뜯어고친 것은 지역 업체가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보장하기 위함”이라며 “이번 조치가 지역 경제의 실태줄인 건설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공공 계약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흥=노형록기자

장성아카데미, 8일 차인표 작가 초청 강연

문화회관서…‘일상의 소중함’ 주제



장성군은 5일 “2026년 새해 첫 ‘장성아카데미’의 문을 차인표(사진) 작가와 함께 연다”고 밝혔다.

126회를 맞이한 아카데미는 오는 8일 오후 4시 장성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리며, 피아니스트 문아람씨의 연주가 어우러진 ‘북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된다.

차 작가는 ‘일상의 소중함’을 주제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오늘’의 의미를 되새기고 하루 습관에 대한 자신만의 철학과 경험담을 전송하게 들려줄 예정이다.

1993년 배우로 데뷔해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차 작가는 2009년 첫 소설집 발간 이후 꾸준히 집필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지난해 소설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이 영국 옥스퍼드대 필수도서로 선정되고, ‘언어사냥’으로 제14회 황순원문학상 신진상을 수상하며 문학적 역량을 인정 받았다.

장성아카데미는 별도 신청 없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장성군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시청도 가능하다.

한편, 오는 22일에는 김지윤 정치학박사가 ‘변동하는 국제 정세와 한반도’를 주제로 강연을 이어갈 예정이다.

/장성=김문태기자

순천시, ‘연속지적도’ 기반 국토정보 정비

3년간 토지이용계획 등 통합

순천시가 시민 재산권 보호와 국토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적도 정비에 나선다.

5일 순천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3년간 연속지적도와 토지이용계획, 행정경계 선형을 통합 정비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그동안 낱장(도과) 단위로 제작돼 좌표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등 오류가 있었던 연속지적도를 최신 세계 기준 좌표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정비된 연속지적도를 바탕으로 토지이용규제 지역·지구와 행정경계선까지 통합해 순질함으로써 데이터의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높

일 방침이다.

이는 최근 ‘공간정보관리법’ 개정으로 연속지적도 관리가 강화된 데 따른 조치이다. 국토교통부의 국토정보 통합 정책과 연계된 사업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건축·개발 인허가나 토지거래 시 시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행정정보 제공이 가능해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각종 민원 서류의 신뢰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지도 정비를 넘어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과제”라며 “정확한 토지정보를 기반으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고품질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정기자

고흥작은영화관 ‘1회용품 제로’ 공간 탈바꿈

다회용 컵 살균·세척 시스템 구축

고흥군은 5일 “지역 대표 문화공간인 ‘고흥작은영화관’을 1회용품 없는 친환경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1회용품 사용을 줄여 폐기물을 감량하고, 지속 가능한 청정 고흥을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군은 이를 위해 영화관 내에 고온 세척기 1대와 살균소독기 2대를 설치하고, 3가지 종류의 다회용 컵과 전용 회수함을 비치해 체계적인 다회용품 사용 시스템을 구축했다.

관람객이 영화 관람 시 다회용 컵을 사용하고 회수함에 반납하면, 전문적인 고온 세척과 살균 과정을 거쳐衛생적으로 재사용되는 방식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많은 군민이 찾는 작은 영화관이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체감하는 거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일상에서 동참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이번 영화관 운영을 시작으로 군청사 1층 카페에도 다회용품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1회용품 없는 고흥’ 만들기에 박차를 기할 계획이다.

/주성학기자



담양-순창군,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탁

담양군은 “최근 자매결연 지자체인 전북 순창군과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탁식을 갖고 우호를 다졌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기탁식은 담양·순창 민간분야 교류 협약을 계기로 양 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양 지자체의 민간단체 대표들이 서로의 지역을 방문해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 각 500만원씩 상호 기부하는 방식으로 진

행됐다.

특히 담양군에서는 주민자치연합회(회장 조희범)·체육회(회장 정영창)·새마을회(회장 김종수)·자율방범연합회(회장 장윤숙)·의용소방대연합회(회장 윤중천) 등 5개 단체 대표 8명이 각 지자체를 방문해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했다.

동 순창군지회(회장 권오준)·자율방범연합회(대장 최순병)·대한적십자사 순창지구협의회(협의회장 소명자) 등 7개 단체 대표 8명이 각 지자체를 방문해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했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이번 상호 기탁은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서로의 지역 발전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마음이 담겨있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과 양 지자체의 동반 성장을 위해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근기자

여수시 ‘서울 여수학숙’ 입사생 70명 모집

16일까지…대학생 주거 안정 지원

여수시가 수도권으로 진학한 지역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 중인 ‘여수학숙’의 2020년도 입사생을 모집한다.

여수시는 5일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여수학숙 입사생 70명을 오는 1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본인이나 보호자가 2년 이상 계속해서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관내 중·고등학교를 졸업(예정)한 서울·경기 소재 2년제 이상 대학(원) 신입생 및 재학생이다.

입사를 희망하는 학생은 신청서 등 구비 서류



서울 도봉구 창동에 위치한 ‘여수학숙’. 〈여수시 제공〉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학업 성적과 생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입사생을 선발하며, 최종 합격자는 오는 2월5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 도봉구 창동에 위치한 여수학숙은 지하 1층·지상 7층 규모로 2인1실의 폐적한 숙소와 하루 3끼 식사를 제공해 유학생들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입사생 귀가 문자 알림 서비스와 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편의 시책도 운영 중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지역 인재들이 타지에서도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과 진로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설 운영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기자